

중국 농촌개혁과 기층의 권력관계: 집체 중심의 공업화 발전 모델을 택한 한 마을의 사례

장수현*

이 논문은 집체의 경제적 기능이 상당히 강한 중국 텐진의 훙치마을에 초점을 맞춰 최근의 농촌개혁이 기층의 권력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수난형 모델'의 하나로서 집체 중심의 공업화 발전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 마을의 경우, 기층 간부들은 마을공장이라는 확실한 경제적 지렛대를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한 정도 유지하고 있다.

공식적 권력구조라는 측면을 볼 때, 훙치마을에서는 개혁 이후 형식상으로 촌민위원회와 농공상연합공사의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제도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그러나 촌민위원회 위원의 선출, 연합공사의 실상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의 공산당 중심의 권력구조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은 당서기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간부들 손에 집중되어 있다.

개혁 이후, 가정승포제의 도입, 시장경제의 활성화, 농민기업가의 등장 등은 중국 농촌에서 기층간부의 권력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농민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훙치마을의 간부들은 토지에 대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집체 중심의 공업화 전략에 성공하여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의 하나인 마을공장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마을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다시 다질 수 있었다. 이들은 위아래로부터의 견제와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마을공장들에 대한 경영권과 농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히 확고하게 지켜 나왔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지역원 전임강사. 관심분야로는 현대 중국의 사회문화 변동, 한국의 화교 사회,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중국 속의 북한난민 등이 있고, 주요 업적으로 "Chinese Peasants on the Wheels of Change: Rural Reform and Its Impact in a Tianjin Village" (일리노이대 박사학위 논문),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 전통의례의 활성화에 관한 고찰: 국가 이데올로기와 농민의 생활철학" (한국문화인류학 제 31집 2호)이 있다(연락처: 우편번호 608-738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지역원, 연구실 전화: 051-640-3461).

1. 문제 제기

이 글은 중국의 농촌개혁이 기층의 권력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권력의 대리인인 촌간부와 일반 농민의 권력관계에 미친 영향을 마을 수준에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개혁 이후 중국 농촌의 집체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는 한편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생산방식이 다시 복원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산당 정권이 아직까지 정치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기존의 간부-농민 관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미칠 것인가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다.

모택동 사후 등소평 중심의 개혁세력에 의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개혁이 기층의 권력관계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개혁개방정책의 공식적인 채택 이후 주로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농촌의 정치적, 경제적 조직의 개편이 공산당 중심의 공식적 권력구조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는지를 보는 것이다.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경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이후, 중국 공산당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해 왔다. 고르바초프의 소련과는 달리 정치개혁을 정면으로 추진하는 데는 반대했지만, 중국 사회주의 정권 역시 어느 정도의 정치개혁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했다. 기층단위에서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제약하고 주민들의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와 농공상연합공사(農工商聯合公司)의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과연 이런 제도적 변화들이 기층의 실질적인 정치 지형도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는 기층단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개혁개방기의 다각적인 경제개혁 조치들이 농촌 기층간부들의 권력기반을 어떻게, 얼마나 침식시켰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기층간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응전략을 채택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정승포제(家庭承包制)의 도입으로 인한 집체경제(集體經濟)의 와해 내지 약화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이 기층간부와 농민간의 권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권력 균형의 변화 정도는 각 기층단위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업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집체 중심의 발전 전략을 따르고 있는 마을과, 개별 농가 중심으로 농업생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을의 정치 지형도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텐진시 근교 쩡하이(靜海)현에 속해 있는 홍치마을(紅旗村, 가명)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¹⁾

현재 중국의 농촌마을들을 농업/공업, 집체/개체라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구분할 때, 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집체 중심성이 강한 '수난모델' (蘇南模式)이 그 한 유형을 이룬다.²⁾ 홍치마을은 전형적인 수난형 마을에 비해 그 경제규모가 떨어지고 재분배 기능도 많이 약하긴 하지만 집체 중심의 공업화 발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난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³⁾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예를 들어 Oi 1990, Brown 1993, 김광익 1997), '수난모델'에 속한 마을들은 마을 공동으로 공장을 경영하여 거기서 얻는 수입으로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을들에서는 촌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주소득원인 공장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체 자체의 경제활동이 없는 마을들과는 달리 간부의 권력 기반이 개혁 이후에도 상당히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 촌간부들은 확고한 정치적 통제력의 바탕 위에서 국가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상급 기관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상급 간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마을들은 경제 발전과 정치적 순응도라는 측면에서 뛰어난 선전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런

1)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1991-92년에 걸쳐 1년 동안 본인이 이 마을에서 실시했던 인류학적 현지조사 와 몇 차례에 걸친 현지 공동연구자의 보충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텐진사회과학원(天津社會科學院)의 연구원인 농촌사회학자 탕중신(唐忠新) 선생은 본인의 현지조사에 동행하여 자료수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본인이 현지를 떠난 후에도 보충자료를 수집해 주는 수고로움을 자청하셨다.

2)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집체 중심, 공업 위주의 발전전략을 택한 지양수(江蘇)성 남부의 마을들과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면서 공업이 발전한 마을들이 이 모델을 대표한다.

3) 진 오이(Oi 1990)는 대도시 근교의 '수난형' 마을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여 '재분배성 기업주의' (redistributive corporatism)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을의 간부들은 상급 기관의 공인과 묵인하에 상당한 정도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홍치마을에서 경제적 변화와 정치권력의 지형도가 맞물리면서 바뀌어나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지 개관: 쩡하이현 홍치마을⁴⁾

1990년 현재, 인구 47만의 쩡하이현은 톈진시 중심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보하이(渤海) 해안에서 가깝고 주요 철도와 간선도로가 종횡으로 교차하고 있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나다. 그래서 옛부터 톈진, 베이징과 동북부의 성들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자 남동쪽의 지양수(江蘇)와 저지양(浙江)으로 통하는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화북평원의 동부에 위치해 있어서 지형이 아주 평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갖지만, 저습지가 많아 여름에 즈야허(子牙河), 헤이룽강허(黑龍港河), 성찬허(生產河), 뚜료우지엔허(獨流減河) 등과 같은 강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기 쉽고 일부 토지의 염도와 알칼리성이 높아 토지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쩡하이현은 6개 진(鎭)과 21개 향(鄉), 383개 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치는 채소 재배를 많이 하는 곳으로 손꼽히는城北향(城北鄉, 가명)의 14개 촌 중 하나이다.

홍치는 현성인 쩡하이진에서 북쪽으로 약 5킬로미터, 그리고 과거부터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인 뚜료우진(獨流鎭)에서 남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마을 바로 동쪽으로 베이징과 푸조우를 잇는 간선도로 쩡푸(京福)공로와 베이징과 상하이로 잇는 쩡후(京滬)철로가 지나가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마을 서쪽으로는 남운하가 흐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운하를 통해 배로 화물과 사람을 많이 운반했으나 1970년대 중반 무렵 이후 물이 말라붙어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홍치는 여러 개의 성씨 집단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마을의 역사는 꽤 길지만⁵⁾ 중

4) 조사지 현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Jang 1998)을 참고할 것.

5) 전설에 따르면, 이곳 입향시조는 명조 초기에 산시성(山西省) 홍동현(洪洞縣) 쪽에서 이주해 온 사 람들이라고 한다. 이 전설은 중국 북부의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역사기록과도 합

족(宗族) 전통은 상당히 미약하며 지배적인 성씨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성씨 집단은 타이(邵), 꾸오(郭), 명(孟), 안(閻)씨로 각각 20호를 조금 상회한다. 이 네 성씨 집단을 모두 합치면 전체 가구수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공산혁명 이전, 변변한 지주와 부농이 없었을 정도로 마을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흥치의 성씨 집단 가운데 종족의 부와 세력을 상징하는 종전(宗田)이나 사당 등을 소유했던 집단은 하나도 없다. 이들이 집단 단위로 행하는 활동은 청명(淸明)과 설날(春節) 등의 절기에 선조의 무덤에 가서 드리는 묘제가 거의 전부다.

1990년 현재, 이 마을에는 235호, 85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총경지면적은 1,896무(畝)로⁶⁾ 일인당 경지면적은 2.2무를 약간 상회한다. 경지 대부분은 남운하와 쩡후철로 사이의 찌아다오(夾道)라고 불리는 지형이 평탄하고 토질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일부는 마을 서쪽의 남운하 건너편에 있는 찌아코와(賈口洼)와 동쪽 쩡푸공로 건너편의 뚱와(東洼)등 저습하고 토질이 좋지 못한 지역에 흩어져 있다. 북부지역의 주식인 밀은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로서 이모작이 가능하여 봄가을에 파종을 한다. 밀 외에 주요 농작물로는 옥수수, 콩 등의 곡류와 배추(大白菜), 오이 등의 채소류가 있으며 해바라기씨, 깨, 땅콩 등 식물성 기름의 원료들도 환급작물로서 약간 재배되고 있다. 아주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가 몇 집 생겨 겨울부터 봄에 걸쳐 유채, 토마토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흥치의 경제는 공업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 개혁개방정책의 시행 이후 향진기업(鄉鎮企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80년대 초반 이래 마을 공동소유의 촌판기업(村辦企業)이 몇 개 설립되어 철제 닭장, 도서설비, 의료기구, 우유포장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촌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 현재 촌판기업은 마을 전체 노동력의 약 74퍼센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마을 총수입의 약 72퍼센

치한다고 한다. 14, 5 세기 무렵 명나라 조정은 원명 교체기의 격렬한 전쟁 때문에 초래된 지역간의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단행했다.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산둥(山東)과 산시(山西)에서 이민집단을 조직하여 인구 부족으로 황폐한 땅이 많은 허베이(河北), 톈진, 허난(河南) 등지에 정착시켰다. 흥동은 이들이 목적지로 떠나기 전에 결집했던 장소였다. 흥치의 첫 정착민들도 이 이민집단의 일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관해서는 Gamble 1954; Friedman, Pickowicz, Seldon 1991: 16-17; 文摘報 1990년 1월 18일 자를 볼 것.

6) 1무는 200평, 즉 667평방미터의 면적을 가리킨다.

트, 순수입의 약 60퍼센트를 산출하고 있다. 개인 소유 공장도 몇 개 있으나 그 규모는 아주 영세하다. 마을 노동력 중의 일부는 향정부 소속의 공장과 현성에 있는 공장에 고용되어 있다. 이처럼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소 농사일은 주로 노인과 여자들이 맡는데, 농번기 때는 보통 공장 노동자들도 출퇴근 전후에 일손을 돕는다.

경제수준만으로 볼 때 이 마을이 현의 선진단위로 손꼽히기는 힘들다. 1990년 현 통계를 볼 때, 홍치의 일년간 일인당 평균소득은 710위안으로 현 평균인 796위안에 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 절감을 위해 마을 지도부가 마을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을 가능성 외에도 쩡하이현에 속한 일부 부유한 마을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⁷⁾ 현의 소득평균이 올라간 것도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위치가 불안정한 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현의 모범마을(‘点’)의 하나로 선정된 것은 이 마을 지도자들과 현의 고위관원들의 오랜 유대관계 때문이라 짐작된다. 홍치는 옛날부터 현당위(縣黨委)의 한 지도자가 중점적으로 관리·지원해 오던 곳이었고⁸⁾ 칭베이향에서 현으로 진급해 올라간 간부들의 도움도 적지 않게 받았던 것 같다. 홍치의 공산당 지부가 몇 해 계속해서 현의 선진단위로 뽑혔던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공식적 권력구조

농촌 권력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혁조치는 인민공사의 해체였다. 인민공사는 정치, 사회, 경제, 행정,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의 기능까지도 모두 통합하고 있던 종합적인 조직체였다. 개혁주의자들은 이처럼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는 조직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정치권력을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은 인민공사를 향(鄉)정부로 대체했는데, 향정부는 이상적으로는 당

7) 1990년 현재, 일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많았던 마을은 서왕즈(史庄子)촌으로 2,660위안의 평균소득을 기록했다. 이 현에는 또 중국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라고 선전한 따츄왕(大邱庄)이 속해 있다. 따츄왕은 몇 해 전에 촌에서 진(鎮)으로 승격되었다.

8) 조사 당시에도 이 지도자는 현의 인민대표회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홍치마을 당지도부의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지도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그 관할하의 집체기업들과 농촌공동체들을 좀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사의 해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84년 말에는 거의 모든 인민공사가 사라졌다(Shue 1984, Ash 1988).

이와 비슷한 구조적 조정이 마을 단위에서도 행해졌다. 개혁 이전 흥치는 청베이 인민공사(가명)에 속한 하나의 생산대대로서 6개의 생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산대대는 대대 공동소유의 공장과 기타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한편, 인민공사의 지시사항을 생산대에 하달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였다.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기본 회계단위인 생산대에서 이뤄졌다. 1980년대 초반, 개혁정책의 시행에 따라 개별가구 중심의 생산방식인 이른바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가 채택되면서 생산대는 그 주요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1986년에는 생산대의 토지소유권마저 생산대대로 넘어감으로써 생산대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1985년, 과거의 생산대 편제에 의거하여 6개의 촌민소조(村民小組)가 촌정부 밑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소조는 과거의 생산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조직으로서 약간의 행정보조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었다. 인민공사라는 명칭이 과거의 행정구역 명칭인 향으로 개칭되었듯이 생산대대도 옛 행정단위였던 촌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생산대대를 촌정부로 대체시키면서 중앙정부는 정경의 분리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1983년에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라는 촌민 자치기구가 설립되었다. 또 촌민들의 자율적인 경제적 협동체로서 농공상연합공사(農工商聯合公司)의 설립이 권장되었다.

과거의 집체체계 하에서는 당서기가 영도하는 지부위원회가 원칙상로나 실제상으로 촌민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래 중앙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경제체계에 맞게 간부와 농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고 촌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층조직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촌민위원회이다. 1987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조직법에 따르면(O'Brien 1994),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자치적인 대중조직이다. 촌민들은 이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고 스스로를 교육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게끔 되어 있다. 이 조직은 공공복리, 분쟁의 중재, 공공질서의 유지, 촌민의견의 상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며 마을의 토지와 기타 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촌민위원회가 지역의 당조직이나 국가기구 밑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촌민위원회는 정부의 지도, 후원, 협조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다. 촌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

변하는 3년 임기의 위원 3-7명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홍치의 촌민위원회는 1983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당시 국가의 주도로 전국에서 추진된 형식적인 제도개혁의 흐름을 탄 것이라 보여진다. 현재 홍치에서 이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법적 규정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촌민위원회는 촌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촌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자치기구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치가 불가능하다. 자유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당지부의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발탁된다. 위원회의 운영 역시 당지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1992년 당시 홍치의 촌민위원회는 주임 한 명과 부주임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위원으로 뽑혔던 사람들은 모두 당서기가 직접 발탁한 사람들이었다. 최근 투표를 실시한 적이 한 번 있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투표에 불과했다. 청베이향의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 주임은 향의 인민대표회의의 대표를 겸임하게 되어 있었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 인민대표회의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도 촌주임을 선거를 통해 뽑았다. 그러나 형식을 갖추는 데 불과했으므로, 이 선거는 편의상 촌판기업의 노동자들만을 투표인으로 하여 치렀다. 또 복수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서기가 미리 낙점해 놓은 인물을 선출한 데 불과했다.

홍치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은 아직도 먼 꿈에 불과한 것 같다. 비교적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한 예들도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수는 아주 적다. 이런 예들은 대개 민정부(民政部)가 정치개혁 시범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 관찰되는데, 촌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O'Brien 1994, Lawrence 1994 참조). 최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위원 선거를 실시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Thurston 1995a, 1995b)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관찰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시범지구로 뽑혀 정치민주화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할 때 복수의 후보를 두고 진정한 비밀선거를 통해 위원을 선출하는 마을들은 정치지도부의 결집력이 약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청베이향에서 올바른 선거를 치러 촌민위원회 주임을 뽑은 곳은 단 한 곳이었는데, 이 마을의 경우 지도부의 내분과 권력 다툼이 심해서 누구를 발탁할 것인지 지도자들끼리 합의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최후의 방책으로 선거를 택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볼 때,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보다 정치적 결집력이 약한 마을에서 현실적 필요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촌민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Lawrence 1994: 67).

위원 선출의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흥치의 촌민위원회는 당지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다. 촌주민들은 지부서기의 명령에 따라 마을 공동사업과 업무를 처리하고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말단 행정관리인에 불과했다. 심지어 당지부 위원회의 위원이면서 공식적인 권력서열상으로 당서기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촌민위원회 주임조차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못가지고 있었다. 촌민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임무는 마을의 공동설비를 유지하고 농업생산을 감독하며 향정부를 도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촌민위원회 아래로 공공치안과 보안유지를 담당하는 치보(治保)위원회와 마을 내부의 분쟁을 조정하는 조해(調解)위원회 등 소위원회들을 설치해 놓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명목상의 하부조직이었을 뿐 실제 업무는 과거의 당 중심 정치조직의 해당 간부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촌주민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촌민소조 대표들의 도움을 받았다. 소조의 대표들도 촌민소조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당서기에 의해 임명되었다. 원래 소조대표들은 무보수로 주임을 도왔으나 1991년부터는 매월 7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명목상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농공상연합공사도 촌민위원회와 다르지 않았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직은 농업, 상업, 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마을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룬 경제적 공동체를 표방한다. 그러나 흥치에서 이 조직은 단지 조직표 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기존의 당조직과 분리된 자발적인 경제조직체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었다. 실질적으로 마을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당서기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당간부들이었다. 이 공사라는 명칭은 과거와는 다른 조직상의 특징을 상징하는 이름이 아니었고 단순히 경제를 중시한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이 경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마을간부들은 촌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사라는 표현을 더 즐겨 썼다.⁹⁾ 농공상연합공

9) 한 마을간부는 공사라는 조직체를 설립한 주된 이유가 외부와의 경제협력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외부 회사나 고객과 거래관계를 맺을 때, 촌이라는 명칭보다는 농공상연합공사라는 명칭이, 당서기란 직함보다는 총경리란 직함이 훨씬 경제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사가 실질적으로 촌과 동일한 조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촌의 최고 권력자인 당서기가 공사의 대표이사(總經理)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촌정부의 사무실에 그려져 있는 공사의 조직표에는 여러 하부조직과 직책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사에 소속된 간부는 대표이사인 당서기밖에 없는 셈이었다.

촌민위원회와 농공상연합공사의 설립은 당지부 중심의 기존 권력구조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기층조직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당의 권력은 여전히 마을의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느껴졌다. 촌민위원회와 농공상연합공사의 존재는 이 마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민주화되고 자율화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싶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조직들 들은 기존의 권력구조에 별다른 변화와 균열을 일으키지 못했다. 권력은 여전히 당서기를 정점으로 한 소수의 간부들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 현재, 이 마을 당지부에는 3명의 여당원을 포함하여 36명의 당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당지부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부위원회에 의해 통솔되었다. 원칙적으로 지부위원들은 당원 선거를 통해 뽑고 당서기는 지부위원들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 결과는 향의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이 향에서 지부위원 선출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누구를 당서기로 뽑을 것인지는 향의 당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되었다. 마을에서는 향의 지도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기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현임서기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게 보통이었다. 지부위원의 발탁은 당서기의 권한에 속했다. 당서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인물을 향 당위원회에 후보로 천거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치체계하에서는 당서기와 그 추종세력이 권력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홍치의 현임서기는 1982년 32세의 나이로 마을의 제1인자 자리에 올랐다. 이때는 중앙의 개혁파에 의해 젊은 간부들의 등용이 강조되던 때였다. 그의 재임기간 중 밑으로부터 몇 차례의 도전이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여 '토황제'(土皇帝)로서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¹⁰⁾ 10년 동안 당서기 지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10) '토황제'란 표현은 한 지방에서 황제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아니었고 그만한 노력이 필요했다. 현재 지부위원 5명 가운데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위원직을 맡아왔고 나머지 3명은 최근에 당서기가 발탁한 사람들이다. 경력이 오래된 고참 위원 두 사람은 가끔 회의에 참석할 뿐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마을 일에도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신입위원 가운데 한 사람은 당서기의 가까운 부계친이었다. 오래 전부터 상급간부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과거 여자 문제로 당의 징계를 받은 경력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현임서기의 도움을 받아 위원으로 뽑혔다. 다른 한 위원은 원래 치보주임직을 맡고 있다가 당서기에 의해 최근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발탁되었고 이어서 지부위원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19세 때 생산대 부대장을 맡은 이후 약 10년 동안 생산대의 간부를 역임했었고 근래에는 촌판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다가 당서기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핵심간부로 발탁되었다.

이 신입위원들은 모두 당서기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출세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당서기의 명령을 잘 따랐지만, 당서기의 지도자로서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권력기반이 확고한 당서기의 자기 중심적 지휘방식 때문에 이들의 자존심은 크게 손상을 입고 있었다. 당서기는 이들의 권위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다. 회의석상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고압적인 태도로 그것을 묵살했다. 이 때문에 신입위원들과 당서기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일부 마을사람들이 당서기의 권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당서기 편을 들지 않았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홍치마을의 권력은 당서기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당간부들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의 공적인 사안은 거의 전적으로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에 의해 주도된 몇 가지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의 공식적인 권력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4. 경제개혁과 기층간부의 권력기반

일반적으로, 등소평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혁은 기층간부의 권력기반인 집

체경제를 와해시킴으로써 농민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조나단 앙거와 같은 학자는, 집체의 해체가 과거 국가가 그 의지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데 사용했던 메카니즘들을 크게 약화시키거나 폐지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적 캠페인이나 기타 억압적 조치들을 없앴으며 아울러 소농경제의 재도입을 통해 기층간부들이 농민들에게 행사하던 일상적인 통제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Unger 1989: 134). 고든 화이트의 주장도 이와 비슷하다. 그에 따르면, 개혁 이후 농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공산당의 역할 축소, 집체구조의 해체 등으로 인해 기층간부와 권력관계에서 농민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White 1987). 이처럼 경제개혁이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원치 않던 필연적으로 국가와 그 대리인인 간부들의 권력을 침식하는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White 1993).

홍치의 예를 볼 때, 이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제개혁은 홍치의 권력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개혁 이전에는 간부-농민의 권력균형이 간부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개혁정책의 시행에 따른 집체의 해체와 생산책임제 도입,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농민기업가의 등장 등이 기층간부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농민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먼저, 개별가족 중심의 가정연산승포제(家庭聯產承包制)의 도입은 집체경제 하에서 기층간부가 향유했던 농민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홍치마을에서 처음으로 생산책임제가 도입된 것은 1981년 말의 일이었다. 상급간부의 지시에 따라 촌간부들은 소단포공(小段包工) 방식을 도입했다. 이 생산방식은 생산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민들에게 약간의 노동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적인 개혁조치였다. 홍치의 생산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3년 말에 단행된 포간도호(包干到戶) 제도의 도입이었다.¹¹⁾ 그 해 겨울 밀 파종을 준비할 무렵, 다른 대다

11) 전국적으로 볼 때 1983년 봄에 이미 85 퍼센트의 생산대가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中國農村發展問題研究組 1984: 37). 쩡하이현이 속한 텐진지구와 허베이성은 지도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생산책임제 채택이 늦은 편이었다. 따라서 쩡하이현의 지도자들도 생산책임제를 채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현에서 개혁정책의 정신을 알리고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혁명 1 세대 간부들 가운데 반대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현 간부들이 초기에는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로 이어지는 삼급

수의 생산대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홍치의 각 생산대는 상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가족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생산대의 실질적 해체를 의미했다. 이 제도 하에서도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생산대에 있었지만, 생산대는 더 이상 과거처럼 공분제(工分制)를 통해 소속 성원들의 노동과 소득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생산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가축, 농기구, 소형농기계 등이 모두 인구수에 따라 소속 가구에게 분배되었다. 이로써, 분배받은 토지의 경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생산계획, 경작활동, 농산물 판매 및 소득 처분 등)이 개별가구에게 주어졌다. 대신, 각 가구는 농업세와 집체 적립금을 납부하고 배당된 양만큼의 양식을 국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국가에 팔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1986년에 다시 한번 토지분배가 이뤄졌는데, 이때는 마을이 한 단위가 되어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인당 분배 면적이 다른 생산대(촌민소조로 개칭)에 비해 적다는 일부 생산대의 불평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적 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홍치의 지도자들은 생산대별로 분배되었던 토지를 회수하여 촌(과거의 생산대대) 소유로 만든 다음, 촌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다시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전의 토지 분배와는 달리 이때는 토지가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구량전(口糧田)으로 각 가구에게 자급식량을 확보케 하기 위한 토지였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승포비(承包費)를 받고 촌민에게 도급을 주는 승포전(承包田)이었다. 구량전으로는 마을 토지 중에서 토질과 위치가 가장 좋은 땅이 주어졌다. 구량전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반면, 승포전은 양도가 가능했다. 그 이후에도 분배토지의 재조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1986년에 도입된 이 방식의 기본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생산대가 기본 회계단위였을 때는 기층간부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 기층간부들은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일년 농사주기에 따라 수행할 작업을 정하고 사원들에게 필요한 작업량을 할당하는 일, 사원들이 완수한 작업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工分)를 주는 일,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일, 그리고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얻은 점수에 기초하여 일년의 소득을 분배해 주는 일

소유제(三級所有制)와 집체에 의한 통일경영(統一經營)을 강조했지만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개혁의 대세에 밀려 가정승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1982년 말, 현 전체 생산대의 78퍼센트 정도가 포간도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까지,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처리했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하에서는 기층간부들이 농민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급간부들의 독촉에 의해 가족 중심의 생산책임제가 시행되면서 농업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이 대부분 개별 농가에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기층간부들은 집체체제하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권한을 잃게 되었다.

기층간부들의 권력기반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개혁조치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공산당이 쩡하이현을 장악한 직후인 1949년에 현 전체의 정기시장(集市)은 모두 18개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했던 것은 현성 쩡하이진에서 매 5일마다(음력 날짜가 4와 9로 끝나는 날들) 열리던 시장이었다. 이곳에서는 과일, 의류, 돛자리, 농기구, 양곡, 가축, 생선, 음식 등 아주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었다(劉正中, 楊又樵 1992).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변혁이 본격화되면서 농민들간이나 농민과 도시인 사이의 직접적인 시장거래는 소위 “자본주의의 꼬리”(資本主義的尾巴)라 하여 반사회주의적인 경제관행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기시장의 수와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77년을 예로 들면, 현 전체에 정기시장이 7 개밖에 없었을 뿐더러 장이 서는 주기도 10일로 길어졌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약간 느슨해지긴 했지만, 정기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의 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다. 거래의 대부분은 집체와 집체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은 1970년대 말부터 농촌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엄격한 제약을 하나씩 풀어주었다. 이에 따라 농촌시장의 수와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¹²⁾ 쩡하이현의 경우, 정기시장의 수는 개혁정책 시행 직후인 1979년에 이미 22개로 늘어났고, 시장의 주기도 5일로 복원되었다. 1988년 말, 정기시장의 숫자는 모두 28개였는데, 그 가운데 5개는 현성에, 16개는 향과 진에, 나머지 7개는 촌에 자리잡고 있었다. 일년 거래액은 약 5천만 위안이었으며 1978년에 비해 4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靜海縣情調查組 1993: 191-193).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급속한 팽창은 촌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희소재화에 대한 통제권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 이전 관료주의적 재분배 체계에서

12) 사회주의 정권하에서의 농촌시장의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Skinner 1985를 참고할 것.

는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간부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재화를 구하기 위해 일반농민은 간부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간부와 농민 사이에는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형성되기 쉬웠다(Jean Oi 1985, 1986, 1989 참조). 그러나 개혁의 시작과 함께 시장 메카니즘이 활성화되자 회소재에 대한 간부들의 독점이 크게 침식당했으며, 자연히 과거에 비해 일반농민들이 회소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훨씬 많아졌다.¹³⁾ 오늘날 홍치의 농민들은 쩡하이진과 푸랴우진 등의 시장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온갖 도구와 자재를 비롯하여 갖가지 소비재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거기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한 이 마을의 사람들은 도심지역으로 나가 쉽게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버스나 마을의 트럭 등을 이용해서 도심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런 상황이 뜻하는 바는 곧 농민 통제용으로 홍치의 간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해졌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달을 배경으로 개혁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농의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 힘입어, 많은 농민들이 다양한 경제부문에 진출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농민기업가의 등장 역시 기층간부의 통제력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홍치마을에서는 80년대 초반 몇몇 농가가 닭과 양 등의 가축을 사육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농민기업가 유형이 등장했다. 1992년 현재, 홍치에는 마을 안에서 잡화점을 경영하는 집 3가구, 현성에서 노점 옷가게를 열고 있는 집 3가구, 도매상을 하는 집 1가구, 그리고 마을 안에서 가족 노동에 의존한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집 3가구가 공식적인 '개체호'(個體戶)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밖에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차로 운송일을 하는 사람, 국수 뽑는 부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마을 소유 양계장을 공동으로 도급받아 경영하는 사람들 등 아주 다양한 농민기업가들이 존재했다. 이들의 사업은 모두 소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른 가구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가구는 없었다. 다른 가구들도 공장에 취직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등, 다른 일을 통해 농의

13) 이것은, 간부들에게 유리한 사회주의적 관료체계가 여전히 상당한 정도 잔존하는 가운데, 과거 주변적 존재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장경제적 계층체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 이후 시장 메카니즘이 강화되면서 농촌사회에 기존의 관료주의적 위계 질서와 시장에 바탕을 둔 경제적 계급 질서가 공존하는 이중적 사회계층체계가 등장했다는 주장을 주목하라(Yan 1993).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소득상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개체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체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적었다. 이들은 대개 자가소비용 양식과 채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구량전만 경작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농사일에 시간을 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승포전은 분배받지 않았다. 또 이들은 자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마을 공장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간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교육세와 기타 일반적으로 내는 부과금을 내는 것 외에 마을에 대해 저야 하는 다른 공식적인 의무가 없었다. 어떤 개체호들은 마을 바깥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므로 마을의 간섭을 받을 기회조차 드물었다. 중국 뉴스 보도를 보면 기층간부들이 새로 부자가 된 농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재산을 파손하는 등의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했었다. 홍치에서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간부들이 개체호들을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이 물건값을 얼마나 비싸게 매기는지, 얼마나 엉터리 물건을 만들어 파는지 등에 대해 얘기할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개체호들에 대한 간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개혁 이후, 이상에서 열거한 몇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과 다른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층간부들의 권력에 누출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간부들의 권위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잦아졌다. 문혁기의 특수 상황이나 당에 의해 계획된 사정운동 때를 제외할 때 집체체제하에서 당서기와 같은 핵심간부들에게 일반 농민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은 홍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1992년 봄에 공장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은 한 젊은이가 당서기를 위협하고 주먹질을 하기 직전까지 간 사건이 발생했고, 1993년 봄에는 타이(邵) 성씨를 가진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당서기의 승용차 바퀴를 빼서 감추고 향의 당위원회에 당서기를 '생활부패' 명목으로 고발한 사건이 터졌다(뒤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 당서기의 부패를 문제삼아 축출하려 한 사건은 90년대 초반에도 발생했었다고 한다. 촌간부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이 근래에 들어 자주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간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다'(以權謀私)고 하는 의심과, 간부들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일 것이다. 부패의 만연 탓에 당과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

뢰감이 무너져 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개혁의 결과 과거의 집체체제 하에서 간부들이 향유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통제수단들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5. 기층간부의 대응

비비안 슈는 중국 농촌의 경제개혁이 국가권력의 침투로부터 농민을 해방시키는 작용을 해왔다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을 거부하면서, 개혁의 결과 지방이익의 보존에 기여해 온 기존의 기제들이 파괴되거나 약화됨으로써 오히려 국가와 시장의 무차별적인 힘에 농민을 노출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다(Shue 1988). 나는 슈의 주장이 개혁 이후 중앙의 통제력과 기층간부의 권력에 상당한 누수현상이 생긴 중국 농촌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평가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조나단 앙거의 주장에 동의한다(Unger 1989). 그러나 지방정부와 기층의 간부들이 개혁정책의 수행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거나 새로운 통제 기제와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을 그 통제권에 묶어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슈가 지적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홍치의 간부들이 개혁조치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와해시키거나 약화시킬 개혁조치들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 왔는지, 또 어떤 새로운 기제와 수단을 통해 농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먼저 농업부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대응방식을 논의해 보자.

1) 농업부문에서의 대응

중앙정부는 가정승포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한 다음 기층간부들이 그 사용권을 임의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1984년의 중앙위원회 문건 1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토지를 도급할 때는 최소한 1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Riskin 1987: 289).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지방정부와 간부들은 개별농호에게 분배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¹⁴⁾ 그러나 홍치와 인근 마을들의

간부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홍치에서는 1983년에 생산대별로 토지의 분배가 처음 이루어진 뒤, 1986년에 마을 전체를 한 단위로 하여 토지가 재분배되었다. 마을 지도자들은 1990년에 그 동안의 가구별 인구변동을 반영하여 토지의 균등분배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또 다시 토지를 부분적으로 재조정했고, 1994년부터는 매년 9월 15일에 토지의 부분적인 재조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을 여기면서까지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이유로서 기층간부들은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인구가 줄어든 가구의 과잉 토지를 인구수가 늘어난 가구에 분배해 줌으로써 토지분배의 균등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의 뒷면에는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좀더 실질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것 같다. 토지 계약기간을 짧게 정함으로써 촌간부들은 토지자원을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예를 들어, 1985년 마을 동쪽의 땅 한 뼨기에 촌정부와 계룡창이 들어설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때처럼 토지에 대한 공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 15년 장기계약이 보장되어 있다면 농민에게 분배되어 있는 토지를 마음대로 다시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기층간부들에게는 토지임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편리하며 토지자원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토지계약을 맺을 때 국가가 규정한 바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관행인 신사협정(‘君子協議’)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농민과 토지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농민에게 토지사용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상급기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¹⁴⁾ 홍치를 포함한 이 지역 농촌사회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징하이현은 1983년 따평땀이(大豐堆)공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계약서에 의한 토지계약을 실험하게 했고, 당중앙위원회의 1984년 문건 1호가 나온 뒤에는 공동계약서 양식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등 이 새로운 조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직 계약서 작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14) 이 15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1998년부터는 집체와 농호가 원칙상 30년을 기한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다.

15) 개혁 초기 토지계약 및 기타 개혁조치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당했다. 이에 관해서는 Zweig 1983, Perry 1985, Anagnost 1989 등을 볼 것.

홍치마을에서는 양계장, 양돈장과 같은 비농업용 집체 재산을 도급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촌간부들이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를 임의로 회수하더라도 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없는 셈이다.

토지자원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이런 대응전략들뿐 아니라, 기층간부들은 농업 부문에서 집체의 경제적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함으로써 권력기반의 약화에 대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소농경영에 따른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가 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집체의 사회적 서비스를 강조하게 되자¹⁶⁾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길과 관개로, 관개용 우물 등의 건설과 보수는 당지부의 지도 아래 촌정부가 관장하고 있고, '실험전'으로 지정된 촌정부 건물 앞쪽 경지에 대한 밭갈이 작업은 촌정부 소속의 농기계작업조('車隊')가 수수료를 받고 해준다. 탈곡작업은 개별농호에 의해 이뤄지지만, 탈곡기의 구입과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촌정부이다. 밀 수확기가 되면 촌정부 소유의 탈곡기를 각 촌민소조당 한 대씩 배당하고 소조 성원들에게 순서를 정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은 촌민들에 대해 간부들이 일정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대로, 홍치의 간부들은 농업부문에서 여전히 약간의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 보듯이 이들에게 권력 약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촌판기업이다. 그럼 먼저 이 마을 촌판기업의 성장과정을 서술하고, 촌간부들이 촌판기업 경영권과 관련한 위와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촌판기업의 형성과 발전

촌판기업에 대한 주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홍치마을의 경우, 간부들은 그 경영권 확보를 통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와 아래로부터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간부들은 개혁조치 시행을 지연

16) 중앙정부는 '쌍층경영'(雙層經營)의 구호 아래 가족경영과 집체경영의 유기적인 결합을 강조했고, '기통일'(畿統一) 구호를 내걸어 집체가 쟁기질, 파종, 추수 등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했다.

시키거나 외형적인 변화만을 수용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 왔다.

홍치마을에 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63년의 일이다. 홍치대대의 간부들은 과거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던 네 젊은이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대 직속의 판금공장을 설립했다. 이 젊은이들은 출신지 농촌으로 도시노동자를 돌려 보내는 운동이 전개되던 1962년에 텐진시에서 홍치로 내려왔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텐진시의 한 전기기계공장에서부터 판금가공 일거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연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주도하에 판금공장은 이 공장과의 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판금을 가공하여 부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그해 겨울, 이 네 사람에 다른 한 명을 합쳐 모두 다섯 사람이 텐진 동교구(東郊區)에 있는 한 생산대대에 가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 동교구의 이 대대는 홍치보다 먼저 텐진시의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판금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은 생산대대와 6개 생산대가 그 동안 적립해 온 돈에서 마련했다. 대대에서 천 위안 남짓, 그리고 각 생산대에서 오백 위안씩을 거둬 조성한 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지었고 텐진의 큰 공장들로부터 싼 값에 중고 기계와 공구를 구입했다. 주요 생산품은 의료용 건조기 몸체였다. 텐진의 공장에서 공급해 주는 철판을 가공하여 건조기 몸체를 만든 다음, 완성된 제품을 남운하를 통해 텐진까지 배로 운반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은 공장 시설의 확장에 재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의 생산능력이 조금씩 늘어났고 생산품도 다양해졌다. 제품의 판로를 넓히는 데는 텐진 도시지역에서 홍치대대로 하방된 지식청년(知識靑年)들과 그 가족들의 연줄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얻은 공업소득은 7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1970년의 총 공업소득은 7만 위안 남짓으로 대대 전체소득의 38퍼센트 정도를 점유한 데 비해, 1977년에는 총 공업소득이 23만 위안을 넘어섰고 그 비중도 60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1978년 이 공장은 폐쇄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가장 큰 거래처로서 이 공장에 계속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던 텐진시 전기기계공장과의 관계가 틀어진 탓에 일거리가 크게 줄어 들었고 그 결과 생산은 급전직하의 형세로 돌아섰다. 1978년 대대 전체의 공업소득은 겨우 10만 위안 남짓이었고 1982년에 이르자 공업소득이 3천 위안까지 줄어들었다.

홍치의 공업생산은 1983년에 설립된 계룡창(鷄籠廠), 즉 철사를 재료로 닭장을 생산하는 공장이 당시의 양계 붐을 타고 호황을 누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개혁 초기, 향진기업 육성 정책에 힘입은 흥치의 간부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룡창을 마을 안의 구 공장터에 세웠다. 이 공장은 80년대 초반 양계업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몇 년간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이 공장의 성공 덕택에 1983년의 마을 총 공업소득은 49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1984년부터 88년까지 이 공장이 올린 순수입만 2백 5십만 위안을 넘었다. 이윤의 많은 부분은 공장의 설비와 공구를 구입하는 데 재투자되었고 일부는 촌정부 건물 등 마을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래의 판금공장도 서서히 80년대 초반의 불경기에서 벗어났다. 이 공장은 텐진의 몇 공장과 하청계약을 맺고 재료를 공급받아 부품을 생산하거나 반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납품했다. 1986년, 이 공장은 마을 총 공업생산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마을 지도자들은 이 공장에서 의료기계 부문을 분리시켜 독립된 공장을 설립했다. 원래의 판금창은 텐진의 회사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책장 등의 사무용 가구를 주로 생산했고, 새로 생긴 의료기계창은 살균건조기와 같은 의료기계를 생산하여 텐진, 지린(吉林)과 서북 지역에 주로 판매했다. 새 공장의 건립은 생산품 다양화, 거래선의 다변화를 꾀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향진기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새 공장에 제공하는 일년 면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91년 겨울에는 기존의 세 공장이 다섯 개로 분할되었다. 마을 지도부는 의료기계창과 계룡창에서 각각 판금공장을 하나씩 분리시켜 독립된 공장을 설립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새 공장 설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보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다. 최근의 세금정책에 따르면 새로 세워진 공장은 2년 동안의 면세 혜택과 3년 동안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장의 재편성을 통해 마을 지도부는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고자 했다. 이들은 개혁조치를 취한다는 명목 하에 공장을 재편성하면서 공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자 고용과 배치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기여도에 따른 상여금의 차등 지급 등과 같은 경영쇄신 조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일인당 500위안의 보증금을 소속공장에 내라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촌간부들은 이 돈이 성실한 근무태도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즉, 보증금을 맡긴 노동자가 일 년간 말썽없이 성실하게 일했음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신용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공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있었던 걸로 보인다.

양계 붐의 쇠퇴와 함께 계룡창의 생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계룡창에서 분리된 판금공장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다. 1992년 여름, 이 공장은 텐진의 큰 공장과의 계약을 맺고 우유포장기계 생산을 시작했다. 최근 여름철 음료제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음료용 플라스틱 포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우유포장기계에 대한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계를 제작해 온 텐진의 공장이 늘어난 수요를 자체적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달아 홍치의 공장에 일거리를 일부 넘겨주었다. 텐진의 공장은 일거리를 나눠준 대신 이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기계 제작에 필요한 원료와 거의 모든 기술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기배선과 관련된 작업은 텐진 공장의 고급기술자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홍치의 공장에서 직접 완수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기계 한 대당 천 위안씩을 받았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우유포장기계의 생산은 홍치마을에 큰 소득을 가져다 주었다. 기계 한 대당 가격이 3만 6천 위안인데, 거기서 생산비용 2만 몇 천 위안과 세금, 기타비용을 빼면 한 대당 약 만 위안의 이윤이 남았다. 기계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수요가 많았으며 고객들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어떤 남방의 고객은 주문한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에서 며칠 머물면서 기계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공장의 일년 생산가능량을 100대로 계산할 때 이 제품의 생산만으로 일년간 백만 위안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촌간부들은 추정했다. 물론 이것은 우유포장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머지않아 크게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윤폭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정이었다.

1992년 봄 등소평이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중국 모든 지역이 남방을 본받아 좀더 대담하고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전국은 또 다시 개혁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였다. 쩡하이현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의 간부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평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超常軌) 특단의 공업발전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공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방면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향과 촌의 간부들을 문책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경제성장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상급간부들의 독려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른 마을들에 경제적으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결

함하여 홍치의 간부들은 개혁의 돌풍 속에 휩쓸려 들어갔다. 이들은 현과 향의 회의에서 전달받은 중앙의 개혁의지와 주요 정책을 마을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실천에 옮길 개혁조치들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촌간부들의 이러한 반응은 중앙과 상급기관의 지시를 자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성격이 강했다. 그 당시 간부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던 것은 철강압연공장(軋鋼廠)의 설립이었는데, 이것 역시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물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철회되었다.

3) 통제수단으로서의 촌판기업

촌판기업들이 홍치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표 1〉 참조). 촌정부에 보관되어 있는 농업통계연보를 보면¹⁷⁾ 1985년 이래 촌판기업의 조수입은 마을 전체 조수입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 왔고, 순수입에서도 1988년과 1991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을 점유해 왔다. 1991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는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양계산업의 쇠퇴에 따른 계룡창의 소득 감소가 큰 요인이 된 것 같다. 우유포장기계 생산에서 큰 소득을 올린 1992년과 그 이후에는 다시 촌판기업 수입의 비중이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총노동력수에 대한 촌판기업 종사자의 비율 역시 아주 높다. 1986년의 비율이 40퍼센트로 크게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거의 60퍼센트 이상을 기록해 왔다. 촌간부와 행정인원도 촌판기업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수치 속에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¹⁸⁾ 또 사실상 기업의 생산적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인원이지만

17) 중국 농촌경제에 관한 공식적 통계는 심각한 신뢰도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개혁 이후 집체경제가 와해되면서 개별농가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많은 경우, 공식적인 통계로 보고되는 수치들은 마을 회계의 책상 위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관련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은 현의 간부들이 인정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들은 전반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정도의 중요성밖에 갖지 못한다.

18) 촌간부의 공식적인 월급은 부련(婦聯)주임이 100위안이고 나머지는 모두 150 위안이었다.

〈표 1〉 홍치마을 촌판기업의 조수입, 순수입, 노동력(1985-1991)

연도	조 수 입		순 수 입		노 동 력	
	액수(위안)	퍼센트	액수(위안)	퍼센트	명 수	총노동력에 대한 퍼센트
1985	1,430,000	72	566,000	64	160	67
1986	1,080,000	62	556,000	56	135	40
1987	2,415,000	73	863,000	92	165	59
1988	3,237,000	70	659,000	49	167	67
1989	2,890,000	74	690,000	55	153	62
1990	2,420,000	72	587,000	60	185	74
1991	2,408,000	60	403,000	39	241	66

사회복지 차원에서 잡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주는 퇴직간부와 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¹⁹⁾

촌판기업 종사자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공장의 회계로 채용한 현 소재의 한 은행 출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을주민이거나 이 마을 출신으로서 다른 마을에 시집간 여자들이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성, 연령, 작업숙련도 등의 요인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공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우유포장기계를 생산하는 판금 공장의 경우 촌간부와 행정인원, 경비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64명에게 임금을 지불했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는 하루 8위안, 여자는 6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공장의 중졸 여자아이들과 연로한 노동자들은 그 임금이 한달에 100위안도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급기술을 소유한 몇 명의 남자기술자에게는 300위안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실제 개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소속공장의 일거리가 많고적음에 따라 좌우되었다. 계룡창의 경우 근래에 주문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는 날이 많았고, 따라서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만큼 임금을 적게 받았다. 이처럼, 촌판기업에서 얻는 수입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홍치사람들에게 촌판기업에서 얻는 수입이 아주 중요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10무 정도의 경지에 양식을 재배하여 얻는 수입이 일년에 3천 위안 정도이므로 공장 임금으로 한

19) 퇴직한 당간부 몇 사람은 한달에 100위안씩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벼운 잡무를 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하지 않았다. 기댈 가족이 없거나 사정이 어려운 노인 몇 사람은 보일러실 관리나 화단 가꾸기 등 가벼운 일을 해주고 몇십 위안의 월급을 받았다.

달에 150위안씩 번다고 할 때 임금수입이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실제 두 사람이 모두 공장에 나가는 한 부부의 경우, 공장 임금이 일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마을이나 인근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공장일을 하면서 농사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사람들에게 촌판기업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이 아주 컸기 때문에 촌판기업은 효과적인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해고나 전직의 잠재적 위험이 효과적인 통제의 수단을 제공해줬다. 국가의 중점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다거나 간부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었고 또 좋지 못한 자리로 쫓겨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이 점은 간부들과 일반 농민들 모두 잘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그런 일도 가끔 발생했었다.

촌판기업은 간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2년 봄에 향정부가 마을 길 양쪽으로 나무를 심도록 작업량을 할당했을 때 이 마을에서는 이 작업을 공장 노동자 몇 사람에게 맡겼다. 이 일을 하는 댓가로 노동자들에게는 하루치 임금이 주어졌다. 만약 공장이 없었더라면 간부들은 훨씬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 개별가구들에 작업을 할당했을 것이다. 관개 시설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작업에도 공장이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1992년, 향정부는 그 관할 하에 있는 14개 마을에 지시를 내려 17개의 관개수로를 보수하도록 했다. 홍치의 간부들은 마을에 내려온 할당량을 각 가구의 가족수에 따라 다시 할당해줬다. 마을사람 한 사람당 1.6미터 길이의 수로가 배당되었다. 각 가구는 배정받은 수로를 향에서 정한 폭과 깊이에 맞춰 보수해야 했다. 간부들은 향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 사람당 15위안의 보증금을 거뒀다. 각 가구가 맡은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그 돈은 촌정부가 보관하였다. 만약 어떤 가구가 보증금을 안내고 책임량도 완수하지 않는 경우 촌정부는 그 가구 성원의 공장 임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공장을 마을 간부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이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간부들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자칫 직장을 잃거나 좋지 못한 일자리로 쫓겨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간부들은 공장이 없는 다른 마을의 간부들에 비해 훨씬 쉽게 일반 농민을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위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그에 대한 대응

홍치의 공장들은 당서기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었다. 위와 아래로부터 공장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개혁과정에서 권력기반의 침식을 경험한 기층간부들에게 촌판기업은 하나의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능한 한 촌판기업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

중앙의 개혁론자들은 기층간부들이 집체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개인에게 기업의 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누누히 해왔다. 중앙에서 개혁 바람이 불 때마다, 기업경영을 개인에게 청부하는 '개인승포제'(個人承包制)의 시행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집체경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쩡하이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의 압력을 받은 홍치의 지도자들은 공장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을 내걸고 1988년 처음으로 개인승포제의 도입을 선언하였다.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공장장으로 발탁하여 그에게 공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맡기고 경영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었다. 연말 결산 다음 이윤이 남으면 그 이윤의 40퍼센트를 촌정부에 주어 마을 전체를 위해 쓰도록 하고, 30퍼센트는 재투자와 유동자본으로, 나머지 30퍼센트는 창장과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윤을 많이 남긴 공장장과 노동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공장장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제를 가하는 일이 없었다. 결국, 촌간부들이 개인승포제를 명목상으로나마 도입한 것은 자신들이 중앙의 개혁정책을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1991년의 공장 재조정 때도 개인승포제가 다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홍치의 간부들은 다섯 명의 공장장을 선임한 다음 각자에게 공장 한 개씩을 맡겨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 공장은 일정한 액수의 승포비를 촌정부에 내고, 연말 결산 때 세금을 제한 다음 이익이 발생하면 10퍼센트는 공장장 상여금으로, 50퍼센트는 노동자 상여금으로, 나머지 40퍼센트는 촌정부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 약속이 발표된 대로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

한다면 얼마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마을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도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개인승포제라고 부르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장들은 '철밥통' (鐵飯碗)에서 밥을 먹는 허수아비 경영자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홍치의 간부들은 공장경영에서 전혀 손을 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발표회장에서 한 간부가 명확하게 표현했듯이, 공장장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모두 "당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당간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홍치의 당지도부는 공장장에게 당간부 한 명씩을 짝지어 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도록 했다.

1992년 봄 등소평의 '남순강화' (南巡講話)를 시작으로 개혁 바람몰이가 다시 시작되자, 홍치에서도 또한번 기업개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마을 지도자들은 현과 향의 회의에서 상급간부들에게 지시받은 바를 마을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결심을 밝히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한편, 중앙과 상급기관에서 권장한 대로 좀더 과감한 경영방식을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향정부 소속의 공장에서 공장장에게 파격적인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향당위의 결정을 흉내내어 홍치마을도 일년 이윤이 백만 위안을 초과한 공장의 공장장에게 만 위안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노동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 그해 8월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지켜졌다. 당서기의 지시에 따라, 촌정부는 우유포장기계의 판매로 이윤이 크게 남은 판금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일인당 300위안의 월급과 300위안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공장장에게 상여금 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흐지부지해졌다. 공장장과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홍치의 지도부가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촌판기업 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마다 홍치의 간부들은 발을 질질 끌면서 변화의 바람이 약해지길 기다리거나 외형적인 변화만을 수용하거나 혹은 부분적인 개혁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촌판기업 경영권을 놓지 않았다. 공장 경영과 관련된 결정권은 소수 간부의 손에 집중된 채 남아 있었다. 특히 당서기는 공장 경영에 아주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농공상연합공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장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거의 모두 혼자서 결정하였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사업상의 협의를 위해 마을을 방문할 때, 해당 공장장이 아닌 당서기와 상담한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서기의 동의를 얻

지 못하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 체제하에서 자원배분의 결정은 시장거래보다 당과 정부의 특권층 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Nee 1989: 176-77), 사업을 하는 데는 연줄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 홍치의 현임 당서기는 이런 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서기로 10년 이상 재임하면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과 밀접한 교분을 쌓아 왔고 이 교분을 잘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영상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장장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가끔 불만스러워 했지만, 현 상황에서 당서기 도움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다. 개인승포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철밥통으로 밥을 먹고 있다”고 고백한 어느 공장장의 말은 바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집체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로부터의 압력도 적지 않았다. 간부들의 권력기반이 상당히 굳건한 이 마을의 경우, 이들의 공식적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잘 나타나는 일상적 저항의 형태들을 통해 마을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특히 과거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가 지금은 주변부로 밀려난 옛간부들이 이런 비판적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입에서 입을 건너 간부들의 귀에 들어가는 마을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간부들에게 상당히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촌판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마을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불만은, 촌판기업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촌판기업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간부들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장장을 선정할 때 능력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고려함으로써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거나 공동재산을 마치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한다거나 하는 점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1993년 봄에 발생한 당서기 고발 사건은 바로 후자에 대한 불만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내가 홍치를 떠난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타이(邵) 성씨를 가진 사람 몇몇이 당서기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바퀴를 빼어서 숨기는 것으로 시작되어 당서기를 생활 부패의 명목으로 향의 당위원회에 고발하는 데까지 진전되었다가 결국에는 현임 당서기가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들이 자동차 바퀴를 빼는 것으로 당서기에 대

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서기의 차는 촌판기업의 공금으로 구입한 차로서 중고이긴 했지만 일제차였기 때문에 구입비용이 아주 많이 들었다. 당시 공금으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은 각급 간부들 사이에 아주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차의 등급이 소유자의 지위를 나타내 준다는 통념 때문에 많은 관원들이 경쟁적으로 외제차 구입에 나섰다. 사람들은 이것을 관료의 특권과 부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의 하나로 간주하여 큰 반감을 표시했다. 이 차는 주로 당서기가 타고 다녔으며 혼상례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는 당서기의 경우에도 공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당서기의 개인 승용차나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당서기에게 이 차는 마을의 대표자로서, 촌판기업의 총경리로서 그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필요한 이동 수단이었을 지 모르지만, 마을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피와 땀으로 적립해 놓은 공동재산의 일부였다. 그런데 당서기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자 이 차는 당서기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공금을 남용한 행위의 상징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간부들의 의견이 예리하게 충돌한 또다른 경우는 촌판기업의 공공복리 기능을 희생시키는 대신 기업적 합리성을 강화시키려는 간부들의 시도와 관련되었다. 간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촌판기업 자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곧 해당 기업과 마을의 경제적 위상의 향상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을사람들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 하더라도 촌판기업 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간부들은 그것을 추진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홍치의 공장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 이 마을주민인데, 공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로 얽혀 있는 마을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인을 고용하는 것이 인사관리와 노동통제에 더 편리하다. 1992년 여름 한 모범마을의 공장을 견학했을 때 홍치의 당서기가 외부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던 그 공장의 간부에게 부러움을 표시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²⁰⁾ 마을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촌판기업은 자신들의 피

20) 당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부에서 온 노동자들을 통제하기가 더 쉽다. 우리 마을 공장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마을사람들이다. 공장 운영할 때 좀더 엄격해지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마을에 같이 사는 노동자들과 안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체면(‘面子’)을 고려해줘야 한다. 외부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압력이 없다. 그 사람들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땀어린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촌판기업에 대해 모두 한 몫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촌판기업에 마을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간부들이 특별히 베풀어주는 호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간부들은 마을사람들의 이런 주장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외부인 고용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1992년 여름,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이 마을에서 다시 개체승포를 내세우기 시작했을 때 한 공장장이 노동 기율을 엄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조치를 채택했다. 공장 노동자가, 비록 마을 전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러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장장의 승인 없이 작업장을 떠나게 되면 빠진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그 내용이었다. 당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몇몇 노동자가 마을사람의 장례식에 음악대의 일원으로 참석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장장이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었다. 이 조치를 두고 한 대원은 다음과 같이 공장장을 비난했다.

자기 부모는 안죽나? 어떡하나 두고보자. 조만간에 그 집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겠지. 우리보고 장례식에 와달라고 한다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거기 가서 망자를 위해 경을 읊어주지 않겠다.

공장장들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뽑힌 줄로 생각한다. 이들이 승포한 건 집체 재산인데, 그만큼 작은 손실[악대 일로 빠진 노동자에게 빠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보지 않으려 한다. 제기랄! 그놈들 버는 돈은 대대 돈이다. 그런데 어째서 대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데 그만한 손실도 안볼려고 하느냐? 그럴 땐 자기 돈을 넣으면 안되나?

이 비난의 직접적인 대상은 공장장이었지만 공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당시기와 핵심 간부들이 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기업 생산성 증대를 꾀하느라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소홀히 하는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복지와 기업의 합리성이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간부들과 일반 농민 사이에 계속 비슷한 양상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간부들은 기업 이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 기존의 여러 혜택들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는 일반 농민들에게 그 주장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먼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불만 섞인 사람들의 뒷얘기는 입에서 입을 거쳐 간부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간부들은 마을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들이 이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할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위아래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확보한 촌판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다각적인 모색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홍치의 간부들은 농촌개혁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권력 기반을 많이 상실했지만 촌판기업의 발전 덕택에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통제수단을 확보하여 그 권력기반을 다시 다질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이 촌판기업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통제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위와 아래로부터 이들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번에 걸친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이들은 때로는 형식적인 수용을 통해, 때로는 발을 질질 끄는 지연작전을 통해 그에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지켜왔다. 홍치의 간부들은 촌판기업이라는 중요한 소득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마을의 간부들에 비해 주민들의 정치적 순응을 좀더 쉽게 끌어낼 수 있었고 국가정책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비교적 쉽게 실행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왜 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중국 정부가 가족농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집체의 순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순응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홍치처럼 집체적 특성이 강한 마을이 그렇지 못한 마을들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 홍치마을의 권력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마을 간부들이

바라듯 쩡하이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난형' 경제모델을 따르고 있는 따쵸우창(大邱庄)처럼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많은 마을들처럼 공업 발전에 실패하고 농업에 주로 의존하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난형 모델을 따르게 되면 간부들의 손에 권력이 더 많이 집중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일반 농민들은 경제발전이 가져다 주는 재분배 혜택을 누리는 대신, 간부들의 권력 남용을 견디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약 홍치의 촌판기업들이 시장경쟁에서 실패하여 문을 닫게 된다면 홍치는 1980년대 초반처럼 거의 농업에만 의존하는 마을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간부들의 권력 또한 함께 약화될 것이다. 현재 홍치에서 간부들이 수행하는 경영자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볼 때, 이 마을이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여러 가지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과 함께 '간부-기업가'(cadre-entrepreneur)들의 정치적 역량과 사업가적 자질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북부의 근교 농촌마을의 사례를 통해 개혁 이후 중국 농촌의 정치 지형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대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건과 보도자료, 그리고 단기 현지관찰에서 얻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씌어졌던 데 비해, 이 논문은 한 마을에 대한 1년간의 심층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일차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권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구체적 과정과, 권력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의 입장이 현실조건 속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약간 더 생동감 있게 그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기층의 권력관계 지형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파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시도는 전체 지형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작은 조각그림 하나를 제시하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참고문헌

- 김광억(1993), “현대중국의 민속부활과 사회주의 정신문명화 운동”,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199-224,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_____ (1997), “현대중국의 향진기업의 발전과 소성진의 사회문화적 변화”, 《국제지역연구》 6(2): 71-101.
- _____ (1998), “현대 중국 농촌에서 공동체 이념의 기반”, 《농촌사회》 8집: 130-160.
- 장수현(1999),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 민간의례의 활성화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31(2): 425-466.
- 陳永平, 李委莎(1991), “宗族勢力: 當前農村社區生活中一股潛在的破壞力量”, 《社會學研究》 5: 31-36.
- 靜海縣情調查組(1993), 《百縣市經濟社會調查: 靜海卷》.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劉正中, 楊又樵(1992), “靜海鎮傳統集日及廟會市場”, 政協靜海縣委員會 文史工作委員會 編, 《靜海文史資料》第三輯: 1-6.
- 王滬寧(1991), 《當代中國村落家族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中國農村發展問題研究組(1984), 《農村經濟變革的系統考察》,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Anagnost, Ann(1989), “Prosperity and Counterprosperity: The Moral Discourses on Wealth in Post-Mao China,” in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A. Dirlirk and M. Meisner, eds, pp. 210-234.
- Ash, Robert(1988), “The Evolution of Agricultural Policy,” *China Quarterly* 116: 529-555.
- Brown, George(1993), “Institutional Reforms in Rural China: Cases from Jiangsu,” paper presented at the 51st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Gamble, Sidney(1954), *Ting Hsien: A North China Rural Commu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Edward, Paul Pickowicz, and Mark Seldon(1991), *Chinese Village, Socialist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ng, Soo Hyun(1998), *Chinese Peasants on the Wheels of Change: Rural Reform and Its Impact in a Tianjin Vill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Lawrence, Susan(1994), “Village Representative Assemblies: Democracy, Chinese Styl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32: 61-68.
- Nee, Victor(1989), “Peasant Entrepreneurship and the Politics of Regulation in China,” in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V. Nee and D. Stark, eds. pp. 169-208.
- O'Brien, Kevin(1994), “Implementing Political Reform in China's Villages,” *Australian Journal of*

- Chinese Affairs* 32: 33-59.
- Oi, Jean(1985), "Communism and Clientelism: Rural Politics in China," *World Politics* 37(2): 238-266.
- _____ (1986), "Peasant Households between Plan and Market: Cadre Control over Agricultural Inputs," *Modern China* 12(2): 230-251.
- _____ (1989),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Village Govern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0), "The Fate of the Collective after the Commune," in *Chinese Society on the Eve of Tianmen: The Impact of Reform*, D. Davis and E. Vogel, eds. pp. 15-36.
- Perry, Elizabeth J.(1985), "Rural Collective Violence: the Fruits of Recent Reform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E. J. Perry and C. Wong, eds., pp. 175-192.
- Riskin, Carl(1987), *China's Political Economy: The Quest for Development since 19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rmann, Franz(1964),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ue, Vivienne(1980), *Peasant China in Transition: The Dynamics of Development toward Socialism, 1949-195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4), "The Fate of the Commune," *Modern China* 10: 259-283.
- _____ (1988), *The Reach of the State: Sketches of the Chinese Body 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iu, Helen(1989), *Agents and Victims in South China: Accomplices in Rural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kinner, G. William(1985), "Rural Marketing in China: Repression and Revival," *China Quarterly* 103: 393-413.
- Thurston, Anne(1995a), "Village Election: The Seeds of Democracy in China?" *China Focus* 3(4): 3-4.
- _____ (1995b), "Village Elections in Lishu County," *China Focus* 3(5): 3, 5.
- Unger, Jonathan(1989), "State and Peasant in Post-Revolution China," *Journal of Peasant Studies* 17(1): 114-36.
- White, Gordon(1987), "The Impact of Economic Reforms in the Chinese Countryside: Towards the Politics of Social Capitalism?" *Modern China* 13: 411-440.
- _____ (1993),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n, Yunxiang(1992), "The Impact of Rural Reform on Economic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a Chinese Villag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27: 1-23.
- Zweig, David(1983), "Opposition to Change in Rural China: The System of Responsibility and

People's Communes," *Asian Survey* 23: 879-900.

Economic Reform and Local Power Relations in Rural China: The Case of a Suburban Village with Collectively Managed Factories

Jang, Soo Hyun*

This paper looks at the impact of the post-Mao rural reforms on the local power relations between cadres and peasants of Hongqi Village in Tianjin, where the collective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economic function. An example of the so-called 'Sunan' model, this village is following a development strategy of collective-led rural industrialization. With a firm grip on collectively run factories, local cadres have had considerable success in maintaining their control over peasant families.

In terms of formal power structures, Hongqi Village appears to have conducted important institutional reforms during the reform perio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villagers' committee(cunmin weiyuanhui) and the associated agricultural-industrial-commercial company(nonggongshang lianhe gongsi). Yet,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actual elec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management of the associated company reveals that the party-centered power structure of the Maoist era has not changed much and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pivotal cadres led by the party secretary.

*Schoo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Area Studie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Area: Sociocultural Changes in Contemporary China, Chinese Communities in Korea, Foreign Laborers in Korea,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Major Publications: "Chinese Peasants on the Wheels of Change: Rural Reform and Its Impact in a Tianjin Vill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The Resurgence of Popular Rituals in Post-Mao Rural China: State Ideology and Peasant Pragmatism" (*Hankook Mumbwa Imryuhak* vol. 31 no. 2)

Phone Number: 051-640-3461, E-mail Address: sjang@gle.pufs.ac.kr

The introduction of the household contract system, the revitalization of market economy, and the rapid emergence of peasant entrepreneurs during the reform considerably weakened the power base of local cadres in rural China, while increasing the autonomy of peasant families. Unlike their counterparts in many other villages, however, Hongqi's cadres could restrengthen their power base. They could not only partially maintain their control of village lands, but also succeeded in collective-led rural industrialization. By tightly controlling village-run factories, a main source of income for the village, they secured a firm grip on their people. Thanks to their clever responses to various checks and challenges from both above and below, they could keep their power base from being seriously eroded.